

방송통신위원장, 통신3사 대표와 첫 간담회

- 가계통신비 인하, 불법스팸 근절, 유통점·알뜰폰사와 상생협력 등
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력 요청 -

방송통신위원회(이하 방통위) 이동관 위원장은 9월 15일(금) 과천청사에서 통신 3사 대표를 만나 방송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.

이번 간담회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사업자와 갖는 첫 간담회로서,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개최되었다.

이동관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과 함께 △ 가계통신비 절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, △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, △ 이용자 불편 해소, △ 불공정행위 규제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등 방통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.

특히, 이 위원장은 “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”면서 통신업계가 “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, 서민의 가계를 위협하는 불법스팸·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또한, “전통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넘어 인공지능, 빅데이터, 메타버스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통신 3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”하면서 “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국민 그리고 다른 사회 구성원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며, 생활 속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함께 해 줄 것”을 요청하였다.

앞으로도 이동관 위원장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플랫폼업체 등과도 만나 방송통신·인터넷 분야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 끝.

담당 부서	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천지현 (02-2110-1510)
		담당자	사무관	이기훈 (02-2110-1511)

